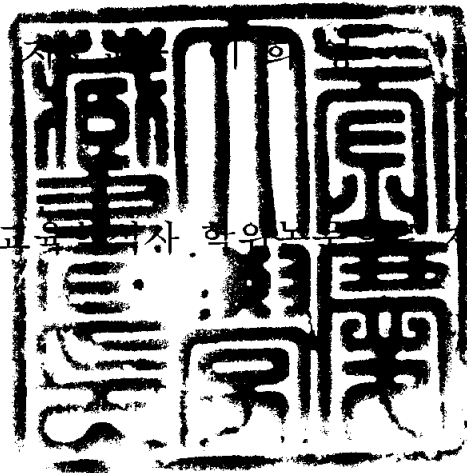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고등학생의 직업흥미 유형 및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이 논문을 교육대학사 학위논문으로 출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김 규 원

김규원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8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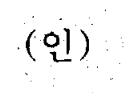
주 심 교육학박사

황 희 숙



위 원 교육학박사

원 효 헌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이 희 영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3
4.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직업흥미	6
가. Holland의 직업흥미 유형	7
나. 직업흥미 일관성	12
2. 자아정체감	15
3. 직업흥미 유형 및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20
III. 연구방법	23
1. 연구대상	23
2. 측정도구	23
가. 직업흥미검사	23
나. 자아정체감검사	24
3. 자료 분석	25
IV. 결과 및 논의	27
1. 결과	27
가. 연구대상자의 직업흥미 및 자아정체감 분포	27
나. 직업흥미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28
다.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34
2. 논의	39
V. 요약 및 결론	42
1. 요약	42
2. 결론 및 제언	43
참 고 문 헌	46
부 록	51

표 목 차

<표 1> 직업흥미 검사의 구성	24
<표 2> 자아정체감 척도	25
<표 3> 남녀 학생의 직업흥미 영역별 점수분포	27
<표 4> 남녀 학생의 직업흥미 유형별 분포	27
<표 5> 남녀 학생의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의 기술통계량	28
<표 6> 성별×직업 흥미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29
<표 7>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30
<표 8> 남녀 학생의 직업흥미 일관성 수준 분포	34
<표 9> 성별×직업흥미 일관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35
<표 10> 성별과 직업흥미 일관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36

그 립 목 차

[그림 1] Holland의 육각형모형	10
[그림 2] Holland의 직업흥미 육각형모형	13
[그림 3] 직업흥미 일관성 측정도	26
[그림 4]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주체성 수준	31
[그림 5]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자기수용성 수준	32
[그림 6]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미래 확신성 수준	32
[그림 7]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목표지향성 수준	32
[그림 8]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주도성 수준	33
[그림 9]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친밀성 수준	33
[그림 10] 성별과 직업흥미 일관성에 따른 주체성 수준	37
[그림 11] 성별과 직업흥미 일관성에 따른 자기수용성 수준	37
[그림 12] 성별과 직업흥미 일관성에 따른 미래 확신성 수준	37
[그림 13] 성별과 직업흥미 일관성에 따른 목표지향성 수준	38
[그림 14]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주도성 수준	38
[그림 15]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친밀성 수준	38

The relation between the type and consistency of vocational interest and self-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Kim, Kyu-W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self-identity and the type and consistency of vocational interest of high school students. For which, 473 persons' data have been statistically analyzed, collected from self-identity and vocational interest test conducted on the second grade boys and girls attending an academic and a vocational high school locat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I.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the type of vocational interest and self-identity?

II.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istency of vocational interest and self-identity? In order to analyze the result, students' type of vocational interest (6 types of RIASEC) and the level of its consistency (3 levels of high, medium and low) were categorized on the basis of type of vocational interest test developed by Holland, according to which inter-group F-test was carried out on the points of each item of sub-category(identity, self-acceptance, certainty of future, goal-orientation, initiative and intimacy) of the self-identity

test, by types or by groups of the same level of consistency. However, as there may be sexual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lf-identity, it was not the interest of this study, still Two-way ANOVA was carried out on each of them with sexual variable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analyze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the type of vocational interest and self-identity?' of <Study Project 1>, Two-way ANOVA was carried out on the point of each item of sub-category of the self-identity according to the type of vocational interest x sexuality. It shows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imacy depending on sex, whil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acceptance, goal-orientation and intimacy depending on the type of interest ($p<.05$).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oint of self-acceptance by reciprocal action of sexuality and type of interest.

Second, in order to analyze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istency of vocational interest and self-identity?' of < Study Project 2>, Two-way ANOVA was also carried out on the point of each item of sub-category of the self-identity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consistency of vocational interest x sexuality. It shows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ertainty of future and intimacy depending on their sex among subcategory of self-identity($p<.05$), whil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identity and intimacy by reciprocal action of sexuality and the consistency level($p<.05$). However, there was no major effect in any category depending on the level of consistency.

There was the difference of students' self-identity (self-acceptance, intimacy, goal-orientation,) in the type of vocational interest, and the different level of self-identity by reciprocal action of sexuality and type of vocational intere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ny category depending on the level of consistenc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부모에게 의존적이던 아동기에서 독립적 생활의 영위가 가능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변화와 사회가 요구하는 독립성, 이성에 대한 적응, 직업준비 및 인생관의 확립 등으로 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게 된다. 그들은 그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되고, 그 선택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선택과 결정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장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직업의 선택일 것이다. 올바른 진로 선택은 한 개인의 진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이재창, 1992).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직업에 대해 어떤 생각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과 직업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수록, 앞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 및 진로에서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직업에 대한 적응이나 성공에는 개인의 능력, 인성적인 자질, 신체적인 특징, 경험, 교양, 의지력 및 기타 환경적인 여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그 중에서 직업의 선택과 성공의 결정 요인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변인은 직업흥미이다. 직업흥미란 학습흥미나 일반흥미와는 달리 여러 가지 직종 가운데 어떤 특정한 직종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관심과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Walsh & Osipow, 1983).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숙한 활동이나 특정 직업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 개인의 흥미와 이에 상응하는 직업과의 일치의 정도는 그만큼 개인의 인생을 만족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직업선택에 있어 직업흥미의 역할을 가장 포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는 직업심리학자는 Holland(1973)이다. 그는 자신의 직업선택 이론에서 직업적 흥미유형을 6가지 유형(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그의 직업흥미유형 이론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은 직업흥미 일관성이다. 직업흥미 일관성이란 한 개인의 직업흥미가 어느 정도 일관성을 보이느냐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으로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직업흥미(RIASEC)영역을 Holland의 육각형 모델에 적용시켜 가까이 있을수록 직업흥미 일관성이 높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직업흥미 일관성은 낮다고 본다.

지금까지 학년, 성, 지능, 자아개념, 내외통제성, 혹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한 많은 변인들을 직업흥미와 관련하여 개별적 혹은 동시에 탐색되어 왔다. 그러나 진로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자아정체감을 직업흥미와 관련시킨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자아정체감과 진로 또는 직업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Chiappone(1989)는 직업 선택을 정체감의 표현으로 보고 직업 탐색 및 결정은 정체감의 내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Larkin(1979)은 자아정체감은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그 정체감이 낮고 부족할수록 진로 결정력이 낮고 미결정의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Munley(1977) 또한, 자아정체감을 높게 형성하고 있을수록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더 잘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몇몇 연구들에서 자아정체감과 직업간의 관련성이 경험적으로 검토되었다.

김태호(1990)는 자아정체감이 낮은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비교적 폭넓고 많은 종류의 직업을 탐색한데 비해, 자아정체감 발달이 성취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소수의 직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문완식(2000)은 자아정체감 수준과 직업적 흥미에 부분적인 부적 상관이 있다고 했으며, 김경희

(1995)와 이영숙(2002)은 자아정체감이 높은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직업흥미 일관성과의 상관이 비교적 높게, 자아정체감이 낮은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직업흥미 일관성과의 상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 흥미 유형과 직업흥미 일관성은 자아정체감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분야의 선행 연구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Ginzberg, Ginsburg, Axelrad와 Herma(1951) 그리고 Super(1957)에 의하면, 직업 흥미를 구체화하는 것은 중기 청년기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시기의 주요 발달 과업이고, 정체감 형성 또한 고등학교 이후에 주로 이루어진다(Erikson, 1968).

따라서 직업흥미 유형 및 일관성과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흥미 유형 및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직업흥미와 자아정체감을 바르게 이해하고 직업선택과 진로지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흥미 유형과 자아정체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직업흥미

흥미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활동영역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느낌을 말한다. 흥미가 어떤 활동이나 대상에 대한 감정적 경험으로서의 행동태도라고 볼 수 있다면 직업흥미란 특정 직업 내지 직업군에 대한 반응정도와 그 직업에서의 주된 활동을 취하려는 선택적 경향을 말한다.

나. 직업흥미 유형

직업흥미 유형은 직업과 관련된 흥미유형으로 Holland(1992)가 직업적 성격 유형이라 부른 개념과 동일하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직업적 흥미를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즉 실재형(realistic type), 탐구형(investigating type), 예술형(artistic type), 사회형(social type), 진취형(enterprising type), 및 관습형(conventional type)의 6개 유형으로 나누었다.

다. 직업흥미 일관성

Holland의 직업흥미유형 이론에 근거를 둔 개념으로 6가지 직업 영역 가운데 첫 번째 직업 흥미 영역과 두 번째 직업흥미 영역을 Holland의 육각형 모형에 적용시켜 가까이 있을수록 직업흥미 일관성이 높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직업흥미 일관성이 낮다.

라. 자아정체감

정체감이란 첫째, 자기의 단일성, 연속성, 불변성, 독자성의 감각을 의미하고 둘째, 일정한 대상 간에 또는 일정한 집단 및 그 구성원간에 시인된 역할의 달성, 공통된 가치관의 공유를 매개로 하여 얻어진 연대감, 안정감에 토대를 둔 자존감 및 잠정적인 자기상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고등학생의 직업흥미 유형 및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 대상을 부산지역에 소재한 4개 남,여 고등학교의 2학년을 임의 표집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직업 흥미

흥미는 인간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기호 또는 수용이나, 거부와 같은 선택적인 행동 태세를 말한다. Klansmicer(1961)는 흥미란 어떤 대상이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택적인 마음가짐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즐거움이나 불쾌한 감정적 반응 중 즐거움의 반응이 일어나는 대상에 접근하려는 행동적 경향이라고 했다. 이렇게 흥미는 대상이나 활동에 대한 느낌으로 심리상태를 지칭하기도 하고 그것이 행동이나 반응으로 표현된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Guilford(1959)는 흥미를 어떤 활동군에 이끌리게 되는 개인의 일반화된 행동경향이라고 정의를 했으며, 그리고 Good(1945)은 흥미를 관심 있는 어떤 지각이나 사상을 포함하며 또 지적 및 감정적 의식의 혼합을 포함하는 주관적 및 객관적인 태도, 관심, 조건이라고 했다.

이렇듯 흥미란 어떤 대상이나 활동 영역에 대한 좋고 싫음 또는 수용이나 거부와 같은 선택적인 행동태세이자 관심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띠게 되고 그 방향에 따라 직업흥미, 학업흥미 등으로 나뉘질 수 있다(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1998). 직업흥미는 직업 영역에서의 좋고 싫음의 호감도로서 직업으로서의 방향성을 가진 흥미라고 볼 수 있으며, 직업흥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직업선택의 조건으로 직업흥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직업 선택이란 일회적인 행위, 즉 단일 결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결정이며, 직업흥미는 직업의 선택, 직업의 지속, 직업에서의 만족감, 직업에서의 성공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흥미는 전공 선택과 직업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직업 선택과 전공 선

택 시 능력이나 성격과 같은 다른 심리적 변인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고 했다(윤정선,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에 대한 흥미여부는 직업의 선택과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가. Holland의 직업흥미유형

Holland(1973)는 개인의 직업흥미를 성격의 표현으로 보았으며, 이를 6가지 유형 즉,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직업흥미 유형론 또는 직업적 성격유형론으로 불리워지는 Holland의 진로 이론은 1950년대 이후로 직업흥미, 직업선택, 그리고 직무만족 평가 등의 중요한 단서가 되어왔다(Takar & Swanson, 1995).

그는 개인-환경이론의 선구자로서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환경을 자신에게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Linton(1945)의 견해를 수용하여 직업적 흥미(성격)유형이란 성격특성 이상의 것으로 환경 및 발달에 따라서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점차 자신의 직업적 흥미(성격)유형론을 발달시켜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분류모형은 1958년의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VPI) 개발과, 1959년의 논문발표 이후 30여 년에 걸쳐 세 차례의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통해 직업과 사람들의 분류방식에 대해 경험적으로 다듬어 졌다. 이 이론은 사람의 직업적 행동을 설명하고 구직과 전직 그리고 직업만족에 이를 수 있는 실재적인 원조에 주된 초점을 두어 개인의 능력, 교육특성, 사회행동, 그리고 성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흥미와 개인의 성격을 크게 구별하지 않는 이 이론은 성격 유형(types)과 환경 모형(models)의 일치성 추구를 통해 직업적, 교육적, 사회적 성공과 능력들을 추구하고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Holland(1992) 이론은 몇 개의 단순한 개념에 의해서 성격과 직업 환경의 복잡한 관계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네 가지 이론적인 기본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첫째, 사람의 성격 유형과 직업적 환경은 다음의 실재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관습형(C)의 6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둘째, 직업적 만족, 안정, 그리고 성취는 개인의 성격과 직업적 환경간의 적절한 연결에 달려있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추구한다.

넷째, 한 사람의 행동은 그들의 성격과 직업적 환경적 특성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기본 가정을 전제로 인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직업 흥미는 다섯 가지의 기본개념인 일관성(Consistency), 변별성(Differentiation), 정체성(Identity), 일치성(Congruency), 기하학적 연산(Calculus)에 의하여 그 관계들이 설명된다. 각 개념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관성이란 성격이나 환경의 유형들은 다른 5개 유형 가운데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형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현실성(R)과 탐구형(I)은 관습형(C)이나 예술형(A)보다 더 관계가 있으며 공통성을 가진다. 일관성은 인성유형이나 환경유형 사이에서 관련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둘째, 변별성은 성격이나 환경들이 하나의 유형범주 속에서 구분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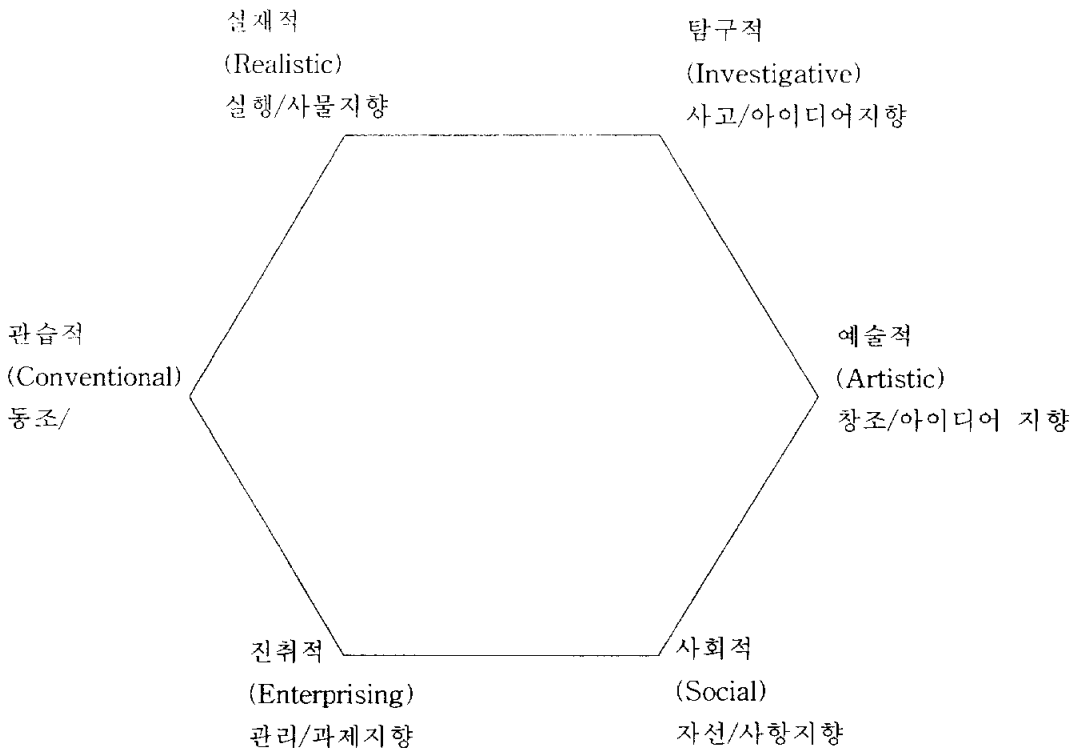
셋째, 정체성이란 목표, 흥미, 재능 등을 나타내는 개인 혹은 환경이 보다 명료하고 안정성을 띠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관성, 변별성, 그리고 정체성은 성격 유형과 환경 모형의 주요한 개념을 초점, 명료성, 내용을 다루고 있다.

넷째, 일치성은 상이한 성격 유형은 상이한 환경모형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기회와 보상을 제공하는 성격 유형과 환경 모형의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에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이 보다 많은 보상과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다섯째, 기하학적 연산이란 성격 유형과 환경 모형 사이의 관계는 이론적인 것만큼이나 비율적이어서 공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직업적 선택은 개인이 지닌 동기요소, 지식, 성격 그리고 능력을 반영하는 표현적 행동이며, 직업 자체에도 하나의 환경,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기본가정과 기본개념에 따라 Holland(1959, 1966, 1985)의 직업적 성격 유형론에서는 직업을 작업환경 혹은 구성원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여섯 가지, 즉 실재적(realistic), 탐구적(investigative), 예술적(artistic), 사회적(social), 진취적(enterprise), 관습적(conventional) 환경으로 범주화하였다. Holland에 따르면, 각 유형의 환경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비슷한 작업환경 속에서 정신적 및 신체적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도 유사하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성격도 역시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등의 여섯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직업 환경의 성격적 특성과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설명하므로 Holland의 이론을 '육각형 모형'이라고도 한다(Prediger, 1982; Prediger & Vansickle, 1992).

Holland(1985)의 직업적 흥미유형 이론에서는 직업선택은 직업적 흥미유형과 직업적 환경유형 간의 상호작용의 함수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의 직업적 흥미를 포함한 직업적 성격 특성이 가장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적 환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여섯 가지 직업적 흥미유형을 그림과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Holland의 육각형모형

(1) 실재적 유형(Realistic)

실재형의 사람들은 그들이 한 일의 결과를 직접 보는 것을 원하며, 그들은 인생을 복잡한 것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여긴다. 이 유형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아이디어나 사람보다는 사물을 다루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기계적인 능력이나 운동능력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특성은 주로 기계적인, 거친, 확고한, 실재적인, 단순한 등의 표현으로 설명된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경찰관, 소방관, 기술자, 목수, 군인 등이 있다.

(2) 탐구적 유형(Investigative)

탐구형의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활동들을 좋아한다. 그들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물리학자, 심리학자, 생물학자, 수학

자, 컴퓨터프로그래머, 화학자 등과 같은 직업들을 좋아한다. 그들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는 작은 그룹이나 혼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면은 실재형 유형의 사람들과 비슷하다.

(3) 예술적 유형(Artistic)

예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기술, 독창력 등을 활용하여 독특한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좋아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표현을 위해 재능을 활용하고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며 음악가, 미술가, 작가, 가수, 디자이너, 배우 등의 직업을 선호한다.

(4) 사회적 유형(Social)

사회형의 사람들은 기계를 다루거나 밖에서 노동하는 일에는 매우 관심이 적지만 대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인간적이고, 사교적이고, 언어적이며 치료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의 문제해결을 돕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에서 보상을 느낀다. 이 유형에서 선호되는 직업들은 종교인, 사회사업가, 상담가, 교사, 간호사 등이며 이런 직업들은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계획하고 여러 활동들을 가르치며 적절한 때에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포함한다.

(5) 진취적 유형(Enterprising)

진취형의 직업들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일들을 포함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설득하는데 유능하며, 사업가, 판매인, 관리자, 정치인처럼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진취형의 사람들도 사회형의 사람들처럼 사람을 다루거나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중

아하지만 그들을 조직적이고 경제적인 이익관계에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관리하는 일에 훨씬 관심이 높다.

(6) 관습적 유형(Conven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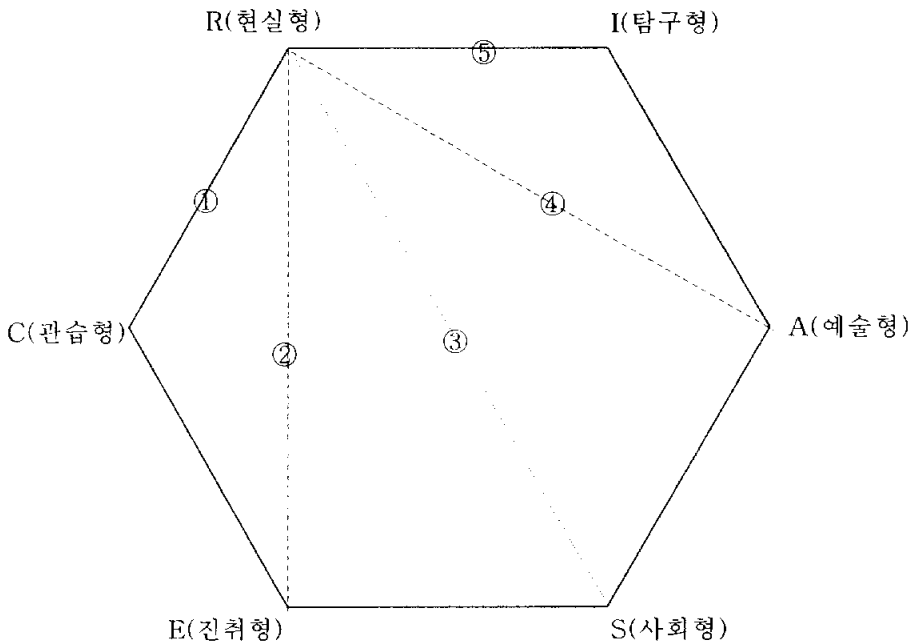
관습형의 사람들은 주로 은행원, 회계사, 컴퓨터오퍼레이터, 비서, 세무관 등의 직업을 선택한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편안하게 사무실내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며 조직 내에서의 안정적인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인생을 예견할 만 하며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곳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으로 생각한다.

나. 직업흥미 일관성

Holland(1985)는 개인의 성격은 그들의 직업적 선택을 통해서 표현되며, 개인의 직업적 만족, 안정, 성취, 그리고 적응은 그들의 성격과 직업 환경간의 적절한 연결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람의 성격과 직업적 환경은 실재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그리고 관습형(C)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으며, 그의 이론의 대표적 모델인 육각형모형을 정교화 시키는 과정에서 6가지 유형간의 관계가 원형(circular order)을 이룬다고 했다. 즉 circular order란 [그림 2]와 같이 6가지 유형의 상관관계가 RIASEC 순서에 따라 원형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육각형모형이란 6가지 유형간 상관관계의 크기가 일정한 비율을 따를 때 성립하는 모델로서, 이와 같은 조건들이 Holland가 주장한대로 완벽히 지켜지기란 어렵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실재형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유형은 ①과 ⑤의 관계인 탐구형과 관습형이며, 다음으로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유형은 ②와 ④의 관계인 예술형과 진취형이다. 반면, 사회형은 실재형과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며, 그 관계성도 가장 작다. 유형사이의 거리는 유형

간 상관의 크기에 반비례하며, 특히 ①과 ⑤의 상관 크기가 동일하고, ②와 ④의 상관 크기가 동일할 경우, 다시 말해 인접한 유형(RI, IA, AS, SE, EC, CR)끼리의 상관이 동일하고, 두 칸 옆에 위치한 유형(RA, IS, AE, SC, ER, CI)끼리의 상관이 동일 할 경우에 육각형모형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Myors, 1998).



[그림 2] Holland의 직업흥미 육각형모형

Holland는 6개 흥미유형과 직업적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6각 모형[그림2]을 제시하며 각 유형 간의 물리적 근접성은 상대적 유사성의 지표가 된다. 즉, 6각 모형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한 유형들은 반대편에 위치한 유형에 비해 서로 더 비슷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진취형과 사회형은 6각 모형에서 서로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더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다. 진취형과 탐구형은 6각형에서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하며, 이것은 그들이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취형과 실재형은 중간정도의 유사성을 지닌다.

한편, Holland 유형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실시할 경우, 6개 유형들이 완벽한 6각형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개 6개 유형들은 순차적 형태를 유지한다. 이것은 6개 유형들 간의 내적 관계가 Holland의 이론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Rounds, Davison & Dawis, 1979; Rounds & Zevon, 1983; 이순철, 2002 재인용).

특히 Holland의 이론은 육각형의 그림에서 직업흥미의 유형들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직업흥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유형들 간의 관계나 심리학적인 유사성은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들 간의 거리를 반비례 관계로 가정한다. 즉, 두 유형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들 간의 유사성이나 심리학적인 유사성이 더 높다.

Holland는 진로결정에는 정확한 자기지식과 진로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이 만들어 내는 자기 환경은 자신의 성격방향과 궁극적인 진로선택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직업흥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직업선택의 조건으로 직업흥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직업흥미란 사람들이 선호하여 그 직업이나 직업군이 포함하고 있는 활동을 취하려는 경향이며 즉, 선호 직업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흥미들을 Holland가 제시한 육각형이론의 6가지 직업영역(실재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진취적, 관습적)과 기본개념에 따라 유사한 영역에 높은 흥미를 가진 것을 직업흥미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직업흥미 일관성이란 Holland의 직업유형 이론에 근거를 둔 개념으로 6가지 직업 영역 가운데 첫 번째 직업 흥미 영역과 두 번째 직업흥미 영역을 Holland의 육각형 모델에 적용시켜 가까이 있으면 직업흥미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직업흥미 일관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2. 자아정체감

자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시작은 James(1890)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자아를 개인의 정체감으로 보았는데, 자아란 한 개인이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그의 신체, 특성 및 능력, 물질적 소유, 가족 및 친구 같은 것의 종합으로 정의하며 경험적 객체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self(자아)와 ego(자신)에 대한 모든 논의는 직접·간접으로 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Cooley(1920)는 James의 영향을 받아 자아란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개인과 사회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자아에 대한 이론을 확립하였다. 그는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면경자아(the looking-glass self)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즉 우리는 타인이라는 거울을 보고 타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주목하여, 그 반응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감정을 발달시킨다고 했다.

Mead(1934)는 Cooley의 면경 자아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자아구조는 타인에 의해서 자기에게 향해질 반응과 태도로부터 형성된다고 하였다. Allport(1955)는 자아 혹은 자아상상, 자아실현, 자아주장 같은 자아의 보조 개념을 사용하기보다는 고유자아를 사용하기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한 개인에 속해 있는, 혹은 개인에 있어서 독특한 그 어떤 것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 개인에게 중요한 일신상의 문제들과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정체감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이론적 발전과 실제적응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은 Erikson(1959)이다. Freud가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의 표출과 발달단계별로 그 에너지의 욕구 충족에 따른 성격발달을 논하고 있는 반면,

Erikson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자아발달을 강조하면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연장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환경과 접촉하는 과정에 아동의 자아양식이 경험하는 위기와 극복과정이 성격발달의 주 요인이라고 하였다.

Erikson(1968)의 접근 핵심은 정체감으로, 그는 자아정체감을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자아정체감의 객관적인 측면은 집단 정체감 또는 국가 정체감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어떤 집단 또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 자신을 지각하고 주장하는 바를 가리키며, 자아정체감의 주관적인 측면은 개별적 정체감(individual identity)으로서, 그는 이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하나는 개인적 정체감(personal identity)으로 어떤 개인이 그가 놓여진 상황과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지라도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리키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동질성과 지속성에 대한 느낌인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 정체감 보다 더 넓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이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나 동질적이고 연속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한 단순한 인식 그 이상의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청소년기 동안에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인지적, 심리적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 그리고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대한 적응 등으로 아동기까지 형성된 자아의식과 상반되는 또 다른 자아상이 모색되면서 점차 한사람의 성인으로서 자신이 갖게 될 통합된 일반적 자아를 형성하고 추구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통합된 자아의 형성과정을 자아 정체감과 정체감 혼돈간의 위기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정신 분석학적 이론과 사회심리학 이론에서 나온 개념들을 통합한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 과정을 인생의 전 생애에 걸쳐 연속되는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그중에서 Erikson(1968)은 청소년기가 정체감 형성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중

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의 발달단계 과정 중 제5단계인 청소년기는 12세부터 18세 경으로 정체감 대 역할 혼미가 형성되는 시기로 특징 지워진다. 그에 의하면 청년기의 주된 과제는 ‘정체감 대 역할 혼미’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자아를 느끼게 되며 자신의 존재를 사회 속에서 찾게 되는데 때로는 병적 증상으로 혹은 호기심으로 스스로 느낀 자기보다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모습에 더 관심을 갖고 이전에 습득한 지식, 역할과 현재의 표준 혹은 이상을 연결시키는 문제에 집착한다. 또한 이 시기는 자아정체감의 위기와 갈등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는 청소년기에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해야 할 일곱 개의 주요 과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시간조망대 혼미의 위기 경험으로 자기 자신이 어린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다가 늙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일관성이 불안정해진다. 이 경우에 앞날의 설계, 목표란 가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 학습에 대한 의미나 성취 목표가 없고, 학습동기 유발이 되지 않는다.

둘째, 자기 확신 대 자기의식으로 자기에 대한 의식이 너무 지나쳐서 모든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 없고, 자신의 생각보다도 타인이 자신을 보는 눈에 마음을 빼앗긴다.

셋째, 역할실험 대 역할고착의 위기로 청소년들은 성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영역에서 역할 실험을 통해 자신의 기능을 탐색해 보아야 한다. 역할 실험은 특히 직업적 정체성의 탐색에 필수적인 것이다. Erikson이 직업은 청소년의 정체감이 발휘되는 아주 중요한 경기장이라고 한 점을 보아도 역할 실험의 실패는 역할혼돈과 더불어 부정적 정체감을 자아내게 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넷째, 연습 대 과업미비의 위기로 하는 일에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내적 충실감을 맛볼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은 전통과 지식을 전달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의미를 발전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가르쳐 주어야한다.

다섯째, 성적 양극화 대 양성적 혼미의 위기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역할들 간의 혼돈과 갈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인관계를 이루기 어렵고 고립되기 쉽다.

여섯째, 지도·추종감 대 권위 혼미의 위기로 자기 위의 사람에게 항상 반발하거나, 반대로 항상 순종적이 되는 극단 속에서 혼동하는 경우이다.

일곱째, 이념적 관여 대 가치의 혼돈의 위기경험이다. 자신의 내부에서 신조가 항상 불안정하여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의혹에 빠지게 된다. 반면에, 과거에 형성된 자아정체감이 너무 확고부동하여 현실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위기도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7가지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과 그 결과에 따라 각 개인의 자아정체감은 독특한 차이를 가지고 형성 발달된다. 그러나 Erikson(1980)은 청소년기에 외현적인 정체감 위기가 오지만 정체감의 형성은 청소년기에 비로소 시작되거나 청소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의식되지 않은 채로, 때로는 의식되면서 일생동안 계속 발달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봉연(1975)은 Erikson의 자아정체감이라는 용어에는 개인이 자기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동질성과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인 어떤 성질을 일관되게 공유하는 상호관계가 암시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정체감이란 때로는 의식적인 개인적 정체감을 뜻하며 때로는 성격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의미하고, 또한 자아통합현상의 준거를 말하거나 집단의 전체적인 이상과 정체감의 내적 결속의 유지를 뜻하기도 한다고 보았으며, 김형태(1989)는 자아정체감이란 이론상으로 자기의 단일성, 연속성, 불변성, 독자성의 감각을 의미하며, 일정한 대상 간에 또는 일정한 집단 및 그 구성원간에 공인된 역할의 달성, 공통된 가치관의 공유를 매개로 하여 얻어진 연대감, 안

정감에 토대를 둔 자존감 및 감정적인 자기상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라는 것, 자기의 존재 증명, 진정한 자기, 주체성’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박아청(1998)은 자아정체감이란 청소년기의 자아인식의 중심형태로 보고, 인간이 성장하면서 갖게 되는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 인생목표, 가치관 또는 이념 등에서 자기가 지니는 독특성에 대한 자각(자기의식)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려는 의식적·무의식적 노력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 또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중석(1993)은 자아정체감 발달과 사회적응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경우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 자아정체감은 각자가 자신의 개인적 특성, 사회생활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삶의 목표,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또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얼마만큼 적절하면서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문제이다.

한편, Erikson이 발달단계에 따라 자아정체감이 어떻게 형성, 발달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비하여 Marcia(1966)는 Erikson이 자아정체감의 형성기를 직업적 또는 이념적 관여가 발달하는 시기라고 본 것을 기초로 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선택, 종교 및 정치이념에 대한 관여와 위기경험 여부를 조사하여 정체감의 성취 지위(identity status)를 분류하였다. 위기는 이념적 신념이나 직업선택과 같은 정체감의 다른 측면들에 도달함에 있어서 투쟁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의문의 시기를 갖는 것을 말하며, 관여는 직업적 선택과 이념적 신념에 있어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하고,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하

려고 하는 것이라 했다. 이 두 가지 준거를 근간으로 하여 Marcia는 네 가지의 정체감 지위유형, 즉 혼미(diffusion), 조기완료(foreclosure), 유예(moratorium), 및 정체감 성취(identity achievement)지위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 네 가지 수준은 누구나 반드시 차례차례 순서를 밟아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두세 가지의 수준단계를 동시에 거칠 수도 있다고 하였다.

3. 직업흥미 유형 및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현대사회에 있어서 직업은 보람과 만족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해 가는 자아실현의 수단이며, 개인의 직업적 성공은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약속하는 관건이다. Harre와 Lamb(1983)는 청소년기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적절한 진로선택을 위한 탐색 및 준비의 시기이다. 즉, 청소년기는 학교 장면에서 일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개인이 어떤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고 일의 세계에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우리는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통하여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직업 선택이란 일회적인 행위, 즉 단일 결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결정이며, 진로결정에는 정확한 자기지식과 진로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태호(1990)는 미국 내 한국 청소년들의 문화적 정체감 발달과 직업선택의 관계라는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이 낮은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비교적 폭넓고 많은 종류의 직업을 탐색한데 비해, 자아정체감 발달이 성취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그들 장래의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해 놓은 상태로 가정되기 때문에 소수의 직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문완식(2000)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직업 흥미와의 관계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차이는 없지만, 자아정체감 수준과 직업적 흥미에 부분적인 부적 상관이 있다고 했다.

김경희(1995)는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에 따라 직업선택 일치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이 성취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직업선택 일치성은 높게 자아정체감이 혼미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직업선택 일치성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영숙(2002)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직업 흥미 일관도와의 관계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의 발달정도에 따라 직업흥미의 일관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이 높은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직업흥미 일관도와의 상관이 비교적 높게, 자아정체감이 낮은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직업흥미의 일관도와의 상관이 비교적 낮다고 했다.

이순철(2002)은 직업적 흥미유형 및 성격과 사고양식간의 관계연구에서 개인의 직업적 흥미유형, 성격 및 사고양식은 직업적 성취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라 하였다.

안성대(2002)는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직업흥미와의 관계연구에서 진로성숙도와 직업흥미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는 직업흥미의 탐구형 집단이 모든 진로성숙도 하위 척도에 대해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정희(1996)는 Holland 이론에 의한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생의 성격 유형과 진로선택 경향분석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행동을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진로교육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세영(2002)은 청소년기의 진로의식 발달 수준과 흥미유형 및 성격특성간의 관계연구에서 진로의식 수준에 따라 성격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직업흥미 유형에 있어서는 남학생은 실재형과 진취형이 많았고 여학생은 사회형과 예술형이 많았다. 따라서 남녀간에 직업흥미 유형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직접 남, 여 고등학교 각각 2개 학교를 방문하여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들 중 5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배포된 500부 중 회수된 설문지는 496부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대답을 한 23부를 제외한 총 47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남녀 사례 수는 각각 인문고 남학생 118명(24.8%), 인문고 여학생 116명(24.5%), 실업고 남학생 115명(24.3%), 실업고 여학생 124명(26.2%)이었다.

2. 측정도구

가. 직업흥미검사

노동부 중앙고용정보 관리소(2002)에서 중, 고등학생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행한 『청소년용 직업흥미 검사』지의 1단계로 직업특성을 구분 짓는 범주들 중 개인에게 가장 의미 있고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진 Holland의 6가지 흥미유형을 나타내는 일반흥미유형(6유형)을 사용하여 개인의 직업흥미유형과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활동에 대한 흥미를 측정하는 ‘활동’척도,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자신감’척도, 직업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는 ‘직업’척도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흥미를 측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코드와 두 번째 코드와의 연결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직업’ 척도 부분만 활용하였다. 흥미유형 별 유형

의 특징 및 문항수와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 α)는 <표 1>과 같다.

<표 1> 직업흥미 검사의 구성

흥미유형	특 징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실재형(R)	실재적이고 단순하며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	7	1,7,13,19,25,31,37	.82
탐구형(I)	지적이고 분석적이며,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	7	2,8,14,20,26,32,38	.89
예술형(A)	상상력이 풍부, 직관적, 개방적이고 독창적임	7	3,9,15,21,27,33,39	.80
사회형(S)	명랑하고 사교적이며 친절하고 이해심이 있음	7	4,10,16,22,28,34,40	.78
진취형(E)	권력 지향적이며 야심이 많고 외향적	7	5,11,17,23,29,35,41	.82
관습형(C)	보수적, 실용적이며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추구	7	6,12,18,24,30,36,42	.81
전체		42		

나. 자아정체감 검사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박아청(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이승국(1999)이 일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아청(1996)이 제작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측정도구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자아정체감 척도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다면적인 자아정체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와 생활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개발된 검사지이다. 이승국(1999)은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8개의 하위영역 중 ‘정체감 혼미’와 ‘정체감 유예’ 등의 두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하위영역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하위영역은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총 48개 문항이며, 15개 문항은 긍정적, 33개 문항은 부정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었고, 5점 Likert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자아정체감 척도의 하위영역별 구성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자아정체감 척도

하위영역	측정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주체성	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지배하여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느낌	8	1, 7, 13, 19, 25, 31, 37, 43	.77
자기 수용성	자기의 실체와 성격특성 및 제반 능력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함	8	*2, *8, 14, *20, *26, *32, *38, *44	.83
미래 확신성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	8	*3, 9, *15, 21, 27, *33, 39, 45	.90
목표 지향성	주어진 과업을 수행 또는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	8	*4, *10, *16, *22, *28, *34, *40, *46	.75
주도성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의 정도	8	*5, *11, *17, *23, *29, *35, *41, *47	.80
친밀성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	8	*6, *12, *18, *24, *30, *36, 42, *48	.82
전체		48		.92

*표 문항은 역 채점 문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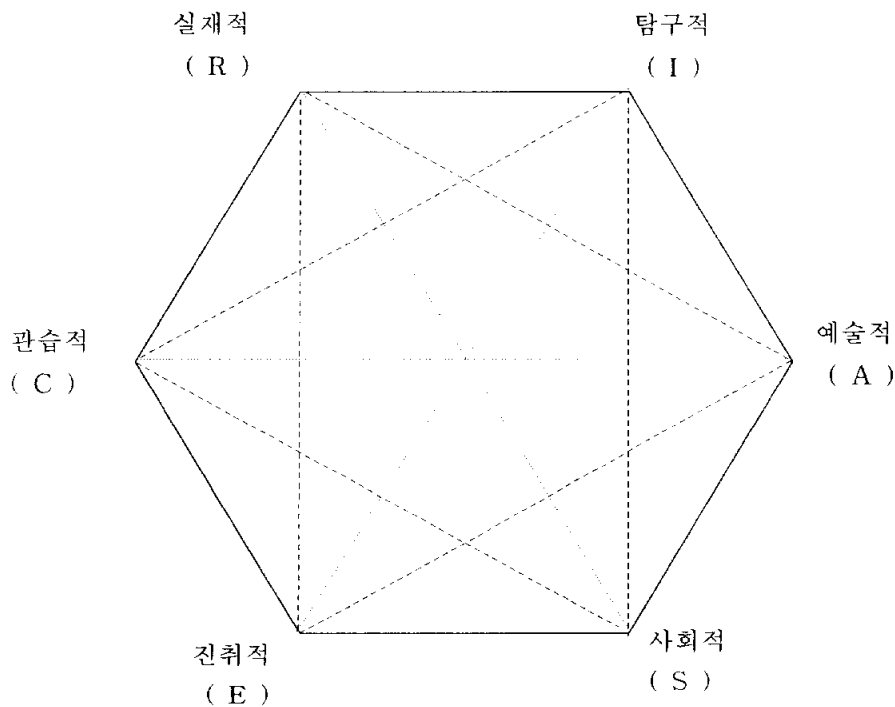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WIN(ver. 10.0)을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1>의 ‘직업흥미 유형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업흥미 유형별 집단 변인과 함께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으로서 성별을 함께 투입하여 성별(2)×직업흥미 유형(6)에 따라 자아정체감 하위요인별 6개 점수(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하였으며, Duncan 방식에 의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직업흥미 유형은 직업흥미 검사 결과 나타난 6개 영역별 점수를 기초로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영역을 개인의 직업흥미 유형으로 보았으며, 가장 높은 점수가 두 개 영역에서 동일 점수를 갖는 경우 분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연구문제2>의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문제1에 대한 분석방법과 마찬가지로 성별(2)×직업

흥미 일관성 수준(3)에 따라 자아정체감 하위요인별 6개 점수에 대하여 이원 변량분석을 수행하였으며, Duncan 방식에 의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직업흥미 일관성 수준은 일관성 점수를 기초로 하여, 1점(상위집단), 2점(중위집단), 3점(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일관성 점수가 1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Holland의 육각모형에 기초하여 6개의 직업흥미 유형 중 가장 높은 점수의 두 가지 코드가 인접할 경우(예, RI, IA, AS, SE, EC, CR)이며, 2점은 두 자리가 한 칸 건너 띄어 나타날 때(예, RA, IS, AE, SC, ER, CI 등), 그리고 3점은 두 자리코드가 정반대의 코드 유형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예, RS, IE, AC, SR, EI, CA 등).



주) ————— 매우 높은 상관관계
 - - - - -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
 매우 낮은 상관관계

[그림 3] 직업흥미 일관성 측정도

IV. 결과 및 논의

1. 결과

가. 연구 대상자의 직업흥미 및 자아정체감 분포

아래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인들에 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직업흥미 영역별 점수분포와 유형분포, 그리고 자아정체감 하위영역별 점수분포를 차례로 제시하였다.

먼저 <표 3>과 <표 4>는 남녀 학생의 직업흥미 영역별 점수분포와 직업흥미 영역별 사례수와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점수의 크기로 미루어 볼 때, 실재형과 탐구형에서는 남학생이, 예술형·사회형·진취형·관습형에서는 여학생이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남녀 학생의 직업흥미 유형별 점수분포

하위요인	남학생(n=233)		여학생(n=240)		전체(N=47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재형 (R)	13.60	3.86	11.01	3.77	12.28	4.02
탐구형 (I)	15.36	5.38	14.44	5.35	14.89	5.38
예술형 (A)	14.90	4.96	16.25	4.29	15.59	4.68
사회형 (S)	15.96	4.53	17.49	4.37	16.74	4.51
진취형 (E)	16.96	4.86	17.83	4.67	17.40	4.78
관습형 (C)	13.51	4.11	14.37	4.30	13.94	4.23

<표 4> 남녀 학생의 직업흥미 빈도분포

하위요인	남학생(n=202)		여학생(n=206)		전체(N=408)	
	N	%	N	%	N	%
실재형 (R)	16	7.9%	3	1.5%	19	4.7%
탐구형 (I)	40	19.8%	33	16.0%	73	17.9%
예술형 (A)	33	16.3%	35	17.0%	68	16.7%
사회형 (S)	41	20.3%	63	30.6%	104	25.5%
진취형 (E)	62	30.7%	60	29.1%	122	29.9%
관습형 (C)	10	5.0%	12	5.8%	22	5.4%

<표 4>는 <표 3>의 결과를 바탕으로 6개 직업흥미 영역별 점수의 상대적인 비교에 의하여 직업흥미 유형별 빈도와 비율을 산출한 결과이다.

표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진취형(30.7%)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여학생의 경우 사회형(30.6%)과 진취형(29.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실재형과 관습형은 남녀 학생 모두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실재형은 1.5%로 최저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5>는 자아정체감 하위요인별 점수의 남녀학생별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점수에서 남녀 학생 간에는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에게서 자기 수용성 요인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을 보였다.

<표 5> 남녀 학생의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의 기술통계량

하위요인	남학생(n=233)		여학생(n=240)		전체(N=47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체성	27.02	4.77	26.11	4.60	26.56	4.70
자기 수용성	31.38	5.78	30.69	5.66	31.03	5.72
미래 확산성	27.55	7.19	25.89	7.19	26.71	7.23
목표지향성	25.36	5.38	24.92	4.66	25.14	5.03
주도성	25.94	5.55	26.02	5.12	25.98	5.33
친밀성	26.48	6.13	28.06	6.07	27.29	6.14

나. 직업흥미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연구문제1>의 ‘직업흥미 유형과 자아정체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업흥미 유형별 집단 변인과 함께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으로서 성별을 함께 투입하여 성별×직업흥미 유형에 따라 자아정체감 하위요인별 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변량분석 결과와 사후검증 결과, 그리고 변인 간 상호작용 그래프를 차례로 제시하면 <표 6>, <표 7>, [그림 4]~[그림 9]와 같다.

<표 6> 성별×직업 흥미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변량원	총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주체성	성별	6.54	1	6.54	.29	.590
	흥미유형	73.95	5	14.79	.66	.656
	성별×흥미유형	234.27	5	46.85	2.08	.067
	오차	8910.90	396	22.50		
자기 수용성	성별	7.77	1	7.77	.24	.620
	흥미유형	470.54	5	94.10	2.97	.012
	성별×흥미유형	427.16	5	85.43	2.70	.021
	오차	12531.45	396	31.64		
미래 확신성	성별	28.74	1	28.74	.53	.464
	흥미유형	239.50	5	47.90	.89	.483
	성별×흥미유형	359.59	5	71.91	1.34	.244
	오차	21158.37	396	53.43		
목표 지향성	성별	20.21	1	20.21	.78	.376
	흥미유형	360.45	5	72.09	2.80	.017
	성별×흥미유형	203.99	5	40.79	1.58	.163
	오차	10182.59	396	25.71		
주도성	성별	8.99	1	8.99	.30	.580
	흥미유형	134.78	5	26.95	.91	.469
	성별×흥미유형	179.07	5	35.81	1.22	.299
	오차	11630.21	396	29.36		
친밀성	성별	240.55	1	240.55	6.56	.011
	흥미유형	580.32	5	116.06	3.16	.008
	성별×흥미유형	57.27	5	11.45	.31	.905
	오차	14506.84	396	3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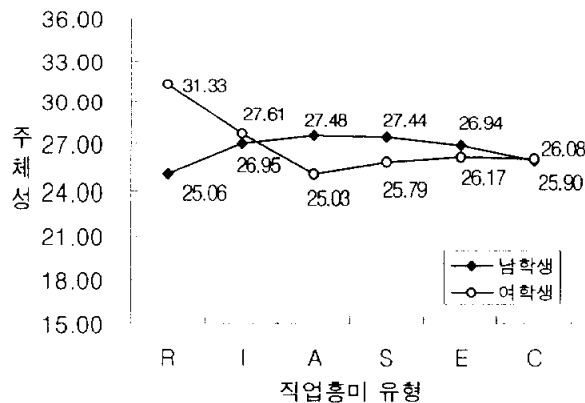
먼저 <표 6>의 결과에서 변인의 주 효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 친밀성이, 흥미유형에 따라서는 자기수용성과 목표지향성 그리고 친밀성 요인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성별과 흥미유형에 따라 자기수용성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5$). 이는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이란 부분적으로(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 친밀성)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직업흥미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7>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자아개념 수준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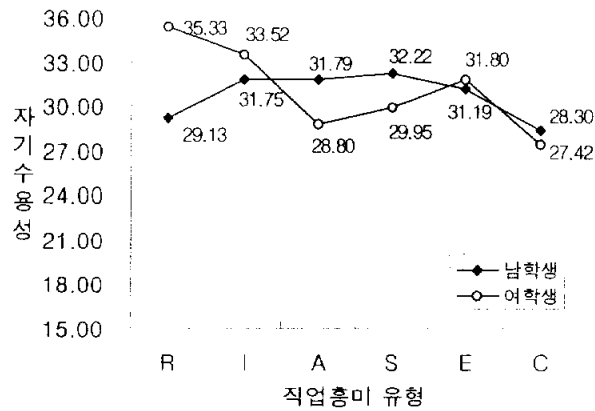
종속변인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Duncan ($\alpha=.05$)
주체성	흥미 유형	실재형 (R)	19	26.05	4.99	R=I=A=S=E=C
		탐구형 (I)	73	27.24	4.34	
		예술형 (A)	68	26.22	4.68	
		사회형 (S)	104	26.44	5.10	
		진취형 (E)	122	26.55	4.80	
		관습형 (C)	22	26.00	4.62	
	성별	남학생	202	26.93	4.73	남 = 여
		여학생	206	26.16	4.78	
자기 수용성	흥미 유형	실재형 (R)	19	30.10	6.23	I=S=E>C
		탐구형 (I)	73	32.54	5.17	
		예술형 (A)	68	30.25	5.73	
		사회형 (S)	104	30.84	5.93	
		진취형 (E)	122	31.49	5.62	
		관습형 (C)	22	27.81	5.73	
	성별	남학생	202	31.30	5.81	남 = 여
		여학생	206	30.79	5.69	
미래 확신성	흥미 유형	실재형 (R)	19	25.47	5.71	R=I=A=S=E=C
		탐구형 (I)	73	27.72	7.78	
		예술형 (A)	68	25.73	7.59	
		사회형 (S)	104	27.15	7.79	
		진취형 (E)	122	26.80	6.97	
		관습형 (C)	22	25.54	6.14	
	성별	남학생	202	27.48	7.33	남 = 여
		여학생	206	26.03	7.31	
목표 지향성	흥미 유형	실재형 (R)	19	26.00	5.37	R=I=A=S=E=C
		탐구형 (I)	73	26.35	5.12	
		예술형 (A)	68	24.11	5.26	
		사회형 (S)	104	25.30	5.20	
		진취형 (E)	122	24.43	4.86	
		관습형 (C)	22	25.59	4.72	
	성별	남학생	202	25.22	5.47	남 = 여
		여학생	206	24.94	4.74	
주도성	흥미 유형	실재형 (R)	19	26.15	5.04	R=I=A=S=E=C
		탐구형 (I)	73	26.30	6.01	
		예술형 (A)	68	25.80	5.49	
		사회형 (S)	104	25.30	5.13	
		진취형 (E)	122	26.57	5.37	
		관습형 (C)	22	25.09	5.07	
	성별	남학생	202	25.80	5.63	남 = 여
		여학생	206	26.14	5.20	

친밀성	흥미 유형	실재형 (R)	19	25.57	7.16	R=I=A=C, R=I=A=S, I=A=S=E, C<S<E
		탐구형 (I)	73	25.94	5.97	
		예술형 (A)	68	26.29	6.48	
		사회형 (S)	104	27.61	6.15	
		진취형 (E)	122	28.68	5.87	
		관습형 (C)	22	24.63	4.76	
성별		남학생	202	26.23	6.04	남 < 여
		여학생	206	28.06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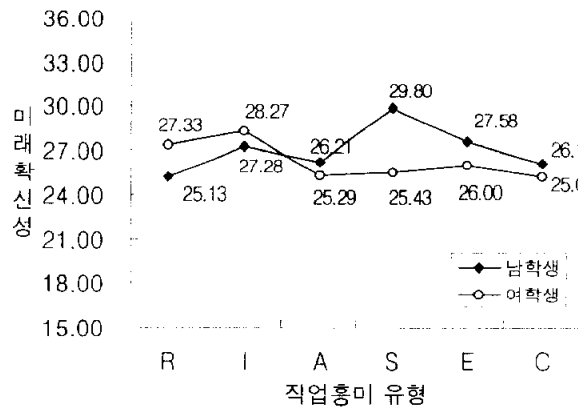
<표 7>의 Duncan 방식에 의한 사후검증의 결과이다. 변량분석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목표지향성 요인에서 흥미유형에 따른 개별평균의 비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결과로는 탐구형의 경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자아정체감 대부분의 영역에서 타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의 4개영역)를 보이고 있으며, 관습형의 경우 자기수용성과 친밀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낮은 정체감 점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주체성, 주도성 요인에서도 역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 직업흥미 유형과 성별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자아정체감 수준의 차이는 다음의 [그림 4]-[그림 9]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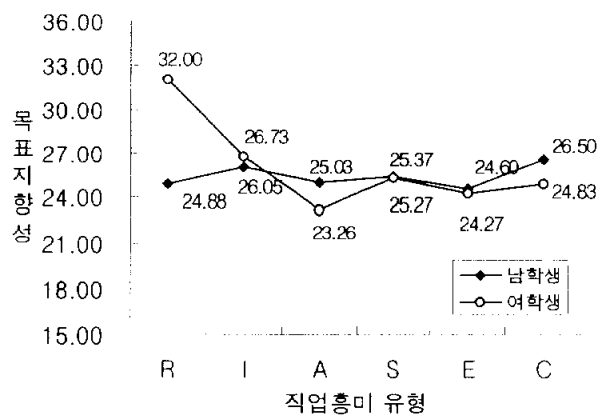
[그림 4]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주체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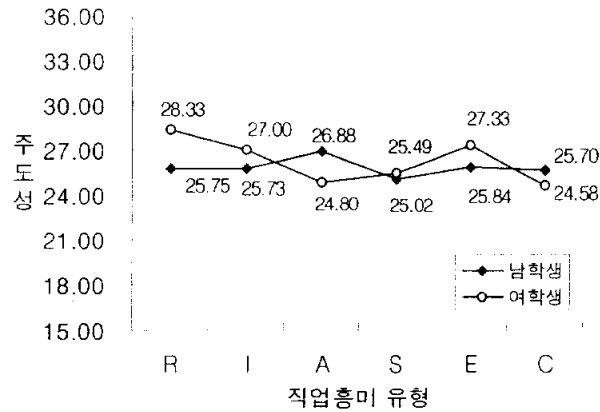
[그림 5]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자기수용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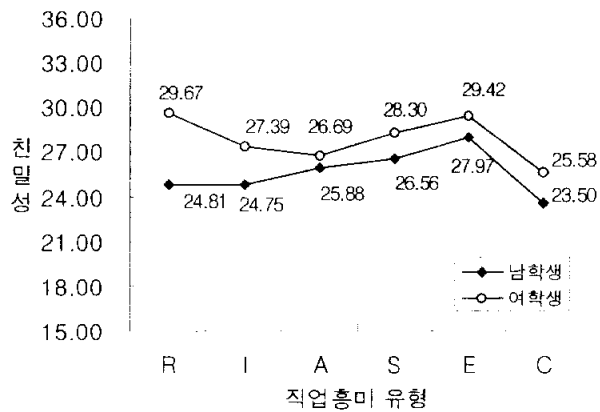
[그림 6]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미래확신성 수준



[그림 7]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목표지향성 수준



[그림 8]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주도성 수준



[그림 9]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친밀성 수준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변량분석의 결과 상호작용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자기수용성 요인의 경우 남학생들은 흥미유형에 따라 자기수용성 수준이 커다란 차이가 없음에 비하여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보다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재형과 탐구형은 자기수용성 점수가 대체로 높으며, 예술형과 관습형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외에도 특징적인 결과는 주채성~미래 확신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아정체감 영역에서 특히 실재형의 직

업유형을 보이는 여학생들은 실재형의 남학생들에 비하여 한결같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볼 때 남학생들의 경우 직업흥미 유형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모든 하위 영역들에서 대체로 점수 수준간 차이가 적으나, 여학생들의 경우 직업유형에 따라 보다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다.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연구문제2>의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업흥미 일관성 유형별 집단 변인과 함께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함께 투입하여 성별×직업흥미 일관성 수준에 따라 자아정체감 하위요인별 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수행하였다.

먼저, 분석에 앞서 남녀학생별 직업흥미 일관성 수준별 분포를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직업흥미 일관성이 상위에 속하는 학생이 50%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일관성 하위에 속하는 비율은 남학생이 조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표 8> 남녀 학생의 직업흥미 일관성 수준 분포

하위요인	남학생(n=202)		여학생(n=206)		전체(N=408)	
	n	%	n	%	N	%
일관성 상	115	49.4%	120	50.0%	235	49.7%
일관성 중	72	30.9%	83	34.6%	155	32.8%
일관성 하	46	19.7%	37	15.4%	83	17.5%

<표 9>는 성별×직업흥미 일관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정체감 하위요인 중 미래확신성과 친밀성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주체성

<표 9> 성별×직업흥미 일관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변량원	총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주체성	성별	12.13	1	12.13	.56	.453
	일관성 수준	21.84	2	10.92	.50	.603
	성별×일관성	248.27	2	124.13	5.76	.003
	오차	10060.28	467	21.54		
자기 수용성	성별	2.46	1	2.469	.07	.782
	일관성 수준	150.77	2	75.38	2.33	.098
	성별×일관성	177.60	2	88.80	2.75	.065
	오차	15066.14	467	32.26		
미래 확신성	성별	383.64	1	383.64	7.41	.007
	일관성 수준	95.23	2	47.61	.92	.399
	성별×일관성	77.10	2	38.55	.74	.475
	오차	24161.51	467	51.73		
목표 지향성	성별	8.80	1	8.80	.34	.556
	일관성 수준	33.42	2	16.71	.66	.517
	성별×일관성	59.76	2	29.88	1.18	.308
	오차	11821.25	467	25.31		
주도성	성별	9.84	1	9.84	.34	.556
	일관성 수준	123.99	2	61.99	2.18	.114
	성별×일관성	22.37	2	11.19	.39	.675
	오차	13267.46	467	28.41		
친밀성	성별	325.36	1	325.36	8.85	.003
	일관성 수준	83.94	2	41.97	1.14	.320
	성별×일관성	252.82	2	126.41	3.44	.033
	오차	17156.90	467	36.73		

과 친밀성이 성별×일관성 수준의 상호작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p<.05$). 그러나 일관성 수준에 따른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변량분석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및 직업흥미 일관성의 수준 집단에 따른 자아정체감 하위요인별 기술통계량 및 사후검증결과를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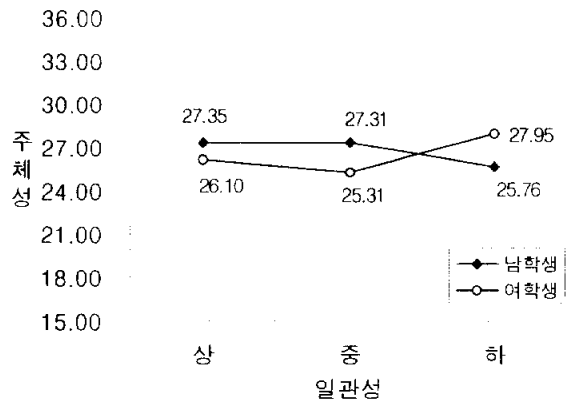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관성 수준에 따른 집단간에는 주체성~친밀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거의 동일한 점수수준을 나타내 주었다. 다만, 미래 확신성 요인에서 남학생이 보다 높으며(남 M=27.55, 여 M=25.89), 친밀성요인에서는 여학생이 보다 높아서(남 M=26.48, 여M=28.06)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다는 것을 보

<표 10> 성별과 직업흥미 일관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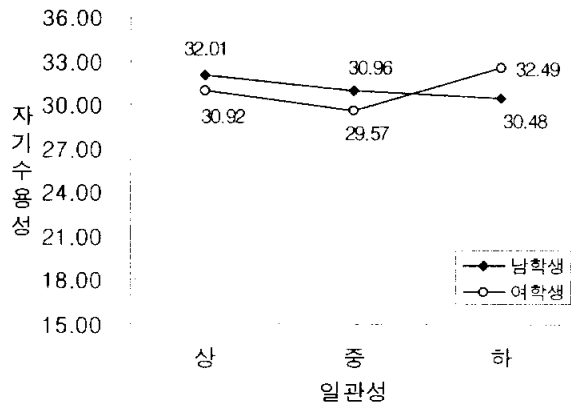
종속변인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Duncan ($\alpha=.05$)
주체성	일관성 수준	상집단	235	26.71	4.90	상=중=하
		중집단	155	26.23	4.66	
		하집단	83	26.73	4.14	
	성별	남학생	233	27.02	4.77	남=여
		여학생	240	26.11	4.59	
자기 수용성	일관성 수준	상집단	79	31.45	5.52	상=중=하
		중집단	293	30.21	6.15	
		하집단	29	31.37	5.31	
	성별	남학생	233	31.38	5.77	남=여
		여학생	240	30.69	5.65	
미래 확신성	일관성 수준	상집단	79	27.05	6.86	상=중=하
		중집단	293	26.00	7.45	
		하집단	29	27.07	7.77	
	성별	남학생	233	27.55	7.18	남>여
		여학생	240	25.89	7.19	
목표 지향성	일관성 수준	상집단	79	25.37	5.18	상=중=하
		중집단	293	24.73	4.89	
		하집단	29	25.20	4.83	
	성별	남학생	233	25.36	5.38	남=여
		여학생	240	24.91	4.66	
주도성	일관성 수준	상집단	79	26.16	5.28	상=중=하
		중집단	293	25.32	5.33	
		하집단	29	26.69	5.39	
	성별	남학생	233	25.94	5.55	남=여
		여학생	240	26.02	5.11	
친밀성	일관성 수준	상집단	79	27.60	6.19	상=중=하
		중집단	293	26.69	6.53	
		하집단	29	27.48	5.12	
	성별	남학생	233	26.48	6.12	남<여
		여학생	240	28.06	6.06	

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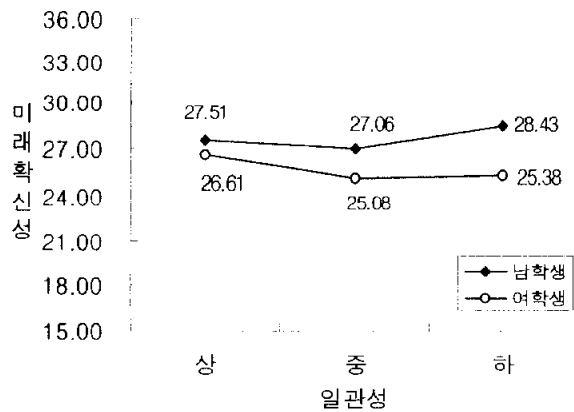
계속해서[그림 10]-[그림 15]는 성별과 직업흥미 일관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아정체감 수준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그래프를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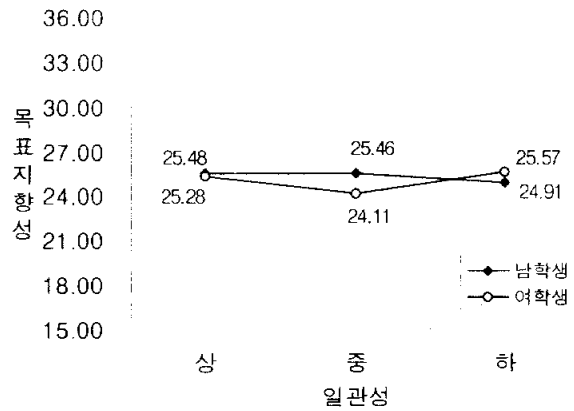
[그림 10] 성별과 직업흥미 일관성에 따른 주체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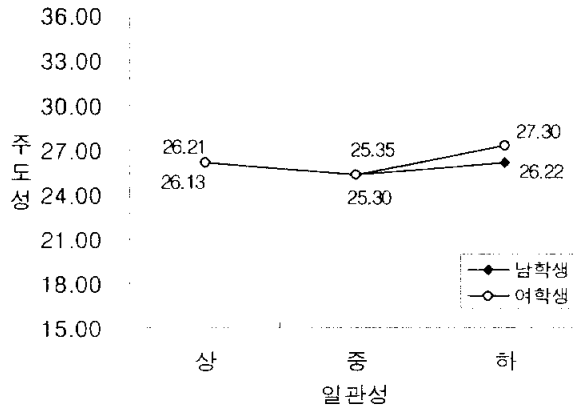
[그림 11] 성별과 직업흥미 일관성에 따른 자기수용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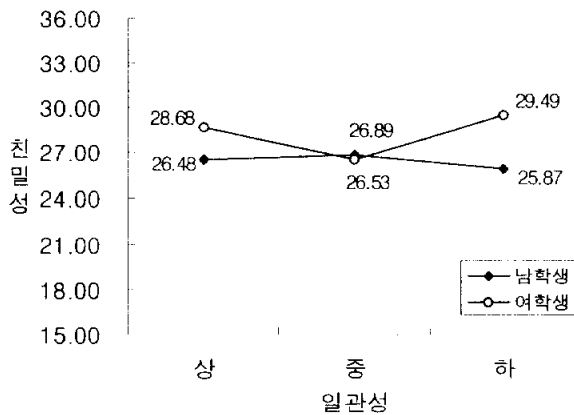
[그림 12] 성별과 직업흥미 일관성에 따른 미래 확신성 수준



[그림 13] 성별과 직업흥미 일관성에 따른 목표지향성 수준



[그림 14]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주도성 수준



[그림 15] 성별과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친밀성 수준

[그림 10]-[그림 15]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자아정체감 수준에는 어느 정도 성별과 일관성 수준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주체성, 자기 수용성, 목표지향성, 주도성의 4개영역에서 일관성 수준이 상, 중에 속하는 남학생들은 동일한 일관성 수준의 여학생들에 비하여 점수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관성 수준이 하위에 속하는 경우, 여학생들은 이들 4개영역에서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6개영역 중 미래확신성과 친밀성의 경우 변량분석의 결과와 일치하게 상호작용보다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다 현저함을 알 수 있다.

2. 논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적인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흥미 유형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서 친밀성이, 흥미유형에 따라서는 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 친밀성 요인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흥미유형의 상호작용으로 자기수용성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결과로 탐구형의 경우 자아정체감 대부분의 영역에서 타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를 보이고 있으며, 관습형의 경우 자기수용성과 친밀성, 주체성, 주도성 요인에서도 역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Hollad(1992)가 RIASEC의 직업흥미 유형에 따라 기대되는 수행행동을 지적인 바와 비추어 생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탐구형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하여 가장 높은 교육수준에 대한 열망과, 교육적 성취수준을 예

측하고 있으며, 관습형의 경우 직업적 포부나 성취행동 등에서 가장 낮은 유형에 속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들은 높은 수준의 자아정체감은 높은 학업성취와 관계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어느 정도 그의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직업흥미 유형과 자아정체감사이의 분석에서 직업흥미 유형은 성별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특징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남학생들의 경우 자아정체감의 수준에서 대부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들의 경우 보다 영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실재형(R) 여학생의 경우, 모든 자아정체감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관습형(C) 여학생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실재형 직업흥미 유형의 여학생들이 보이는 결과는 전형적으로 실재형에 속하는 직업유형이 남성적 직업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실재형 유형의 여학생들이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특성과도 어느 정도 관계되는 듯이 보인다. 즉, 실재형에서 보이는 현저한 성격특징들은 남성적이고, 솔직하고, 성실하며, 고집스럽고, 직선적이다(안창규, 1996). 여학생에서의 이러한 성향이 주체성이나 목표지향성 등과 같은 영역에서 타 유형의 여학생들에 비하여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고등학생의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일관성 수준에 따라서는 자아정체감은 그 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직업흥미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선호에 관한 관찰 점수만을 기초로 직업흥미 일관성을 고찰했다는 것이다. 즉, 대체로 Holland식의 직업흥미 유형이 직업 선호, 자신감, 활동이나(노동부, 2002), 혹은 성격특성, 직업선호, 유능감, 가치(안창규, 1996) 등으로 측정되고 흥미 일관성을 산출함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업 선호만을 기초로 제한한 결과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직업흥미 일관성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자아정체감 수준과 관계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추론이다. 전자의 경우 보다 포괄적인 영역을 통한 직업흥미 유형과 일관성의 측정으로 후속연구가 시행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자의 경우가 보다 타당한 추론이라면, 이는 직업흥미 일관성은 적어도 일반적인 자아정체감이라는 변인과는 직업흥미 일관성이 무관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한편으로 진로 자아정체감 등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진로관련 정체감과의 연구의 필요성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 수준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또 다른 주요 특징으로 남학생들과는 달리 적어도 여학생의 경우 일관성 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 자아정체감 수준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경향 또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역시 앞서 제기한 후속연구들이 수행된다면 보다 확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의 결과로서는 그러한 경향성만을 보여주었다고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직업흥미 유형 및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직업흥미 유형과 자아정체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2>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Holland식 직업흥미 유형검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직업흥미유형(RIASEC의 6유형) 및 직업흥미 일관성 수준(상중하의 3수준)을 분류하였으며, 이들 유형별 및 일관성 집단에 따라 자아정체감 검사의 하위영역별(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점수에 대한, 집단간 F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만,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에 본 연구의 관심사는 아니었으나, 각각에서 성별 변인을 함께 투입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1>의 ‘직업흥미 유형과 자아정체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직업흥미 유형에 따라 자아정체감 하위요인별 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 친밀성이, 흥미유형에 따라서는 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 친밀성 요인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성별과 흥미유형의 상호작용으로 자기수용성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징적인 결과로 탐구형의 경우 자아정체감 대부분의 영역에서 타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의 4개영역)를 보이고 있으며, 관습형의 경

우 자기수용성과 친밀성, 주체성, 주도성 요인에서도 역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 수준을 보여주었다. 상호작용의 특징적인 결과로서는, 자기수용성 요인의 경우 남학생들은 흥미유형에 따라 자기수용성 수준이 커다란 차이가 없음에 비하여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보다 차이가 뚜렷하며, 주체성~미래 확신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아정체감 영역에서 특히 실재형의 직업유형을 보이는 여학생들은 실재형의 남학생들에 비하여 한결같이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둘째, <연구문제2>의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직업흥미 일관성 수준에 따라 자아정체감 하위요인별 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아정체감 하위요인 중 미래확신성과 친밀성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주체성과 친밀성이 성별×일관성 수준의 상호작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p<.05$). 그러나 일관성 수준에 따른 주 효과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상호작용의 결과를 살펴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자아정체감 수준에는 어느 정도 성별과 일관성 수준에 따라 상호작용의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주체성, 자기 수용성, 미래지향성, 주도성의 4개영역에서 일관성 수준이 상, 중에 속하는 남학생들은 동일한 일관성 수준의 여학생들에 비하여 점수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관성 수준이 하위에 속하는 경우, 여학생들은 이들 4개영역에서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의 경향성을 추측할 수 있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을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흥미 유형(RIASEC)에 따라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 친밀성)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이들 직업흥미 유형은 학생의 성별과 상호

작용하여 자아정체감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직업흥미 일관성은 그 자체로서는 자아정체감 수준과 관계없는 듯하며, 성별에 따라서는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상호작용의 경향이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우선 제한된 집단으로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보다 확장된 표집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473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사실상 Holland식의 RIASEC 직업유형 같이 직업흥미 유형이 다수에 속하면 광범위한 표집을 하지 않고서는 모든 유형에 따라 적절한 사례수를 수집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R형에 속하는 여학생의 경우 소수에 지나지 않았음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Holland식의 직업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단지 '직업에 대한 선호'만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대개 Holland식의 직업 흥미 유형을 위해 취해지는 활동영역, 자신감(유능감) 영역을 보다 포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반복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업흥미 유형과 자아정체감과의 분석 결과 자아정체감은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독자적인 차이보다는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차이가 보다 두드러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흥미 일관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분석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 자체는 관심문제가 아니었으므로 제한적으로 그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후속의 연구는 성별에 또한 초점을 두고 진로유형 및 자아정체감의 관련성을 유기적으로 파악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직업흥미 유형 및 직업흥미 일관성과 일반적인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고찰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자아정체감의 영역을 진로자아 정체감 등과 같이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변인으로 제한하여 연구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직업흥미 일관성은 자아 정체감 수준과는 독자적으로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진로 자아정체감 등의 수준과는 보다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1998). **직업선호도검사 개발연구보고서**,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 김경희 (1995). **자아정체감 발달단계와 직업선호일치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 김계현 (2001).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대양 (1995). **적성과 흥미 및 Holland의 진로유형간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봉환 (1994). **고교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진로결정 양식과의 관계**. 한국기술교육대학 논문집 창간호. 453-466.
- 김아영외 5명 (2001). **교육심리학**. 서울: 학문사.
- 김용주, 류지훈(200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견해분석**. **직업교육탐색**, 20(2). 35-50.
- 김태호 (1990).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청소년들의 identity발달과 직업선호의 상관**. **교육심리연구**, 4(2). 196-223.
- 김형태 (1989).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문완식 (2000).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직업흥미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박성미 (2001). **구조적 및 적응적 일치이론에 근거한 학과적응분석**.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박세영 (2002). **청소년기의 진로의식 발달수준과 흥미유형 및 성격특성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박아청 (1990).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 박아청 (1996a).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5(1), 140-162.
- 박아청 (1996b). **한국형 자아정체감의 타당도 연구**. **교육심리연구**, 10(3),

67-84,

박아청 (1997). 성격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박아청 (1998). 자기의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서민희 (2001). 한국 고등학생들에 대한 Holland 직업흥미이론의 문화간 타당도 평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봉연 (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서봉연 (1995). 자아정체감의 정립과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송영준 (2002).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박장환 (1996).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 교원대학교.

안성대 (2002).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직업흥미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안창규 (1996). 진로 및 적성 탐색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 한국 가이던스.

오현수 (1999). 가치명료화과정이 충동적 사고성향에 따라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윤정선 (1999). 중학생의 직업흥미에 관련된 배경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달엽, 이성일 (2001). Holland의 직업인성이론. 연구보고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이순철 (2002). 직업적 흥미유형 및 성격과 사고양식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이승국 (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이영숙(2002).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직업흥미일관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문, 이화여자대학교.

이재창 (1992). 진로프로그램의 활용.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연구** 10, 19-36.

이정근 (1988). **진로지도의 실제**. 서울: 성원사.

이정희 (1996). **Holland이론에 의한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생의 성격유형과 진로선택 경향분석**.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이차선 (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변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이현주 (1998).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이현주 (1998). 진로의사 결정과 개인적 변인들과의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10, 223-276.

이화림 (2001). **부모양육태도와 중·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이효남 (2001).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의 개발**. 노동부 중앙고용정보원.

장숙자 (1997). **학습부진아를 자아정체감의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정종권 (1998). **청소년 후기의 가정과 학교생활 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조복희, 정옥분, 유가호 (2003).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채가란 (1999).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최기혜 (1993). **성격유형에 따른 직업흥미와 지각된 유능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허운영 (1998). **성격의 5요인 모형과 흥미의 Holland 모형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허창구 (2002). **Holland 이론을 토대로 한 한국판 직업흥미검사개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Allport, G.(1955). *Becoming: Basic considerations for a psychology of persona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ooley, C. H(1920).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 Y: Scribner.
- Chiappone, J. M.(1989). Clinical issues in career counseling of adults: A new challenge career planning and adult. *Development Journal*, 5(3) (EJ 400025). 5-14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 Y: Norton. [윤진, 김인경 역 (1997). *아동과 사회*.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 Y: Norton.
- Erikson, E. H(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 Y: Norton.
- Hansen, J. C & Campbell, D. P(1985). *Manual for the strong interest inventor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 Harre, R & Lamb, R.(1983) *The encyclopedic dictionary of psych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Holland, J. L(1959). A theory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 35-45.
- Holland J. L(1966). *The psychology of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personality types and model environment*. Waltham, MA: Blaisdale.
- Holland, J. L(1973).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Englewood Cliffs, N.Y: Prentice-Hall, Inc.
- Holland J. L(1985).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lland J. L(1992). *Making vocational choice*(2n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Klansmicer, H. J. (1961). *Learning and human abilities*. N. Y: Harper & Row.
- Marcia, J. E(1966). Development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Mead, G(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unley, J. E(1977). Erikson's theory of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Myors, B(1998). A Monte Carlo comparison of three tests of the Holland hexagon is perfe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3, 215-226.

Prediger, D. J(1982). Dimensions underlying Holland's hexagon: Missing link between interests and occup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1, 259-287.

Prediger, D. J, & Vansickle, T. R(1992). Locating occupations on Holland's hexagon: Beyond RIASEC.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0, 111-128.

Taker, D. M & Swanson, J. L(1995). Dimensions relating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y typology and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57-74.

부 록 (설문지)

안녕 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고등학생들의 직업흥미 유형 및 직업흥미 일관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고등학생들의 진로지도 기초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문항에 성심껏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 4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과 김 규 원

※ 제일 뒷장 응답지를 떼어내어 사용하시고 설문지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1. 자아정체감 검사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 자신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 내용이 자신과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곳의 해당 번호를 응답지에 적어주십시오.

전혀	대체로	그저	대체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2.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다.
3.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고 있다.
4. 나는 일을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
5.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6. 나는 모임에 나가면 가급적 사람이 적은 곳이나 구석에 앉는다.
7.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8. 나는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9. 나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
 10.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11. 나는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잘 이끌리는 편이다.
 12.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13.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스스로 처리한다.
 14. 나는 우리 집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15. 나는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스스로 잘 모르겠다.
 16. 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
17.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18.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19. 나는 내 판단에 자신이 있다.
 20. 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21. 나는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알고 있다.
 22.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하는 편이다.
 23. 나는 혼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24. 나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
25. 나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26. 나는 이 세상일은 결국은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7. 나는 장차 나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28. 나는 빈둥거리며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편이다.
 29. 나는 다른 사람을 이끌기보다는 따라가는 편이다.
 30. 나는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 갈 때가 많다.
 31. 나는 지금의 내 모습 이 대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2. 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지가 않다.
-
33. 나는 장래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없다.
 34. 나는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35. 나는 결단력이 부족한 것 같다.
 36.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유별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37.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3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39. 나는 나 자신의 삶의 목표를 뚜렷이 정해 놓고 있다.
40. 나는 어렵거나 힘든 일을 피하는 편이다.
41.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린다.
42. 나는 각종 모임에서 지도자 역할을 기꺼이 맡는 편이다.
43. 나는 일단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 내고야 만다.
44. 나는 내 자신을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45.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46. 나는 남보다 잘 하는 일이 별로 없는 편이다.
47.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이다.
48. 나는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편이다.

2. 직업흥미 검사

다음에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직업들에 대해 호감이 가는 정도를 4가지 척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그 번호를 응답지에 적어 주십시오.

【예】 “악기제조원(악기를 직접 만든다)” 문항을 자기가 “매우 하고 싶다” 면 답지에 4번으로 기록 바랍니다.

1. 전혀 하고 싶지 않다. 2. 하고 싶지 않다. 3. 하고 싶다. 4. 매우 하고 싶다.

1.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를 정비·수리한다)
2. 유전공학자 (생물체의 유전에 관해 연구한다)
3. 작곡가 (교향곡, 영화 음악 등을 작곡한다)
4. 진로상담교사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한다.)
5. 대표이사 (회사의 중요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6. 은행원 (창구에서 고객의 현금거래를 담당한다)

7. 전기기사 (전기장치를 설비, 유지한다)
8. 물리학자 (물리적 현상을 연구한다)
9. 음악평론가 (음악작품이나 연주를 평가한다)
10.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한다)
11. 회사경영자 (회사의 대표로 중요한 결정을 책임진다)
12. 계산원 (계산대에서 상품 값을 계산한다)

13. 선박기관사 (선박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여 선박을 운행한다)
14. 생물학자 (생물의 성장 및 기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15. 성악가 (대중 앞에서 노래한다)
16. 상담 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한다)
17. 해외특파원 (해외에서 시간을 취재한다.)
18. 비서 (문서를 정리하고 상사의 스케줄을 관리한다)

19. 축산업자 (소나 돼지 등을 사육한다)
20. 화학자 (유·무기화학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21.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이나 문양을 도안한다)
22. 사회 복지 사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일한다)
23. 신문기자 (사건을 취재하여 신문기사를 작성한다)
24. 정리 사무원 (회사에서 현금장부를 기록·관리한다)

25. 낙농업자 (우유 생산을 위해 젖소를 사육한다)
26. 약학자 (새로운 의약품을 연구·개발한다)
27. 의상디자이너 (새로운 의류디자인을 만든다)
28. 유치원 교사 (유치원에서 아동들을 가르친다)
29. 시사 프로그램 PD(방송 시사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한다)
30. 도서관 사서 (도서를 정리·분류하고 대출해 준다)

31. 소방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한다.)
32. 지질학자 (지질구조, 암석 및 퇴적환경 등을 연구한다)
33. 소설가 (소설을 쓴다)

- 34. 간병인 (몸이 불편한 환자를 돕는다)
- 35. 뉴스앵커 (뉴스를 보도한다)
- 36. 속기사 (말하는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한다)

- 37. 특용작물 재배자 (지역특산물을 재배한다)
- 38. 의학자 (인체의 질병을 연구·진단한다.)
- 39. 시나리오 작가 (TV 드라마나 영화 대본을 쓴다)
- 40. 중/고등학교 교사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친다)
- 41. 홍보담당자 (제품판매를 위한 홍보 전략을 세운다)
- 42. 우체국 직원 (우편물을 분류·발송한다)